

## “94개혁정신 계승...재심판결 후속 행정절차 중단”

의현스님 재심논란 해결방안  
대중공사·종회서 도출 '요청'

총무원장 스님, 3원장 명의  
중앙총무기관 입장 발표

중단내의 다양한 구성원 참여  
29일 대중공사서 지혜 모아야

재심호계원의 의현스님 공권정지 3년 판결과 관련해 총무원장 스님이 재심판결에 따른 행정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논란해소를 위해 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와 중앙총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입장 발표에 따라 오

는 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리는 100인 대중공사 재심 논란 해소와 해법 마련의 장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재심 논란에 대한 중앙총무기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교육원장 현승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 3원장 스님의 명의로 발표한 '94년 중단개혁정신을 계승하여 중단발전과 한국불교 중흥을 이루겠습니다' 입장문에서 "중앙총무기관은 재심판결이 중단개혁정신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개혁불사를 통해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개혁불사가 미진한 점에 대한 책임 표명과 더불어 중단개혁정신 계승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중단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또 재심 논란 해소를 위해 총무원장 스님은 "재심호계원 판결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100인 대중공사와 중앙총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해결방안을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며 "재심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판결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중단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이 분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절차 중단을 천명한 것은 중단 행정수반으로서 재심 판결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 의미로 풀이된다. 또 대중공사와 총회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을 당부함으로써 중단 집행부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출·재가이 함께 하는 100인 대중공사와 입법기구인 총회를 통해 중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재심 논란을 해결하겠다는 뜻

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지 사장 주경스님은 재심호계원 판결에 대해 6월24일자 사설에 대한 중단 안팎의 문제제기에 대해 사과했다. 주경스님은 "불교신문은 중단 기관지로서, 한국불교 대표 불교언론으로서 1994년 중단개혁 정신을 분명하게 계승하고 지켜나가고 있다"며 "다만 뜻과 다르게 사설로 인해 오해가 생기고 대중들을 불편하고 괴롭게 한 점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총무기관 입장 발표와 본지 사설에 대한 사과에 따라 이번 5차 100인 대중공사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 대중공사 추진위원회 역시 5차 대중공사에 참여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중단개혁과 재심 결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는 중단개혁 참여 스님들과 재가자들부터 재심호계위원 및 중앙총

회의원, 대중공사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단체 등까지 초청해 바람직한 해법 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중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재심호계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던 단체들도 중앙총무기관 입장발표에 따라 100인 대중공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실천 불교전국총기회는 23일 "중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겠다는 점에 환영을 표한다"며 "대중공사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사면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전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14개 단체로 구성된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 역시 24일 오후 7시(7월24일 오후 5시 현재) 2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중앙총무기관 입장 발표에 따른 100인 대중공사 참여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 노동환경 재해구호활동 등 '3급 승가고시 자격' 반영

불교사회활동진흥법 입법예고

사회활동 현장에서 4년 넘게 일정 건수 이상 활동한 스님들은 앞으로 승가고시 및 동법 시행령 규정예 따라 3급 승가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자비와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활동하고 현장에서 자비와노동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승·재가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도 주어진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스님들의 사회활동 활성화와 노동위원회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하는 불교사회활동진흥법 개정안을 7월15일부터 8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후 중앙총회에 상정, 통과되면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그동안 사회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단체 및 승·재가에 대한 제도적 근거와 재정적 지원이 없어 중단차원의 대사회활동 인력 수급이 쉽지 않았다. 불교사회활동진흥법은 사회부산하 법안 및 위원회 활동 스님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대사회활동에 기여한 단체 및 승·재가에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사회활동에 기여한 스님들은 앞으로 승가고시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급 승가고시 자격을 얻는 한편 활동비를 지급 받게 된다.

제반의 사회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시킨 것도 특징이다. 개정안은 '불교사회활동' 범위를 노동계층 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복지, 재해구호, 소외계층 등으로 확대, 제반의 사회활동이라 규정하고 이를 위한 법안 및 단체 설립·운영 등을 구체화했다.

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성전스님의 행복해지고 싶을 때

#### 출가

행자님들 인문 교육 시간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명 행자님들을 앞에 두고 나는 이야기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출가의 길은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길이라고.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한 여러분 역시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몇 되지 않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나는 행자님들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빛은 눈을 초롱하게 뜨고 또 빛은 감응 없는 표정으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

가장 어려 보이는 행자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출가 하게 되었느냐고. 행자님은 일어나 아주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출가하라고 해서요." 나는 그 말이 너무 귀여워 웃으며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14살입니다." 예쁜 그 모습의 수줍은 대답이 참 예쁘게 다가왔습니다.

출가는 누구에게나 위대한 포기입니다. 순치황제나 싯달타 태자에게만 국한 되는 의미의 말은 아닙니다. 출가자는 누구나 위대한 포기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행자도 나이 든 행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집착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포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 비록 산하대지의 주인이려면/ 나라와 백성 걱정 마음 더욱 시끄러워/ 백년, 삼만 육천 날

이/ 승가의 반나절 한가함에 못 미치네/ (중략) 지난 18년 간 자유로운 없었으니/ 산하대전으로 어찌 실 틈이 있었겠는가/ 내 이제 손을 털고 산속으로 돌아가니/ 천만 가지 근심 걱정, 내 아랑곳 할 일 없네." 순치황제는 이런 출가 시를 남기고 홀연히 출가를 했습니다. 강의 대제가 아버지 순치황제를 찾아왔을 때 강의대제는 짐과 차(鞍過此)라는 글귀를 보고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순치황제는 자신의 출가 시를 위배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진정 마음으로 출가한 사람이었고 날마다 출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출가, 그 아름다운 선택은 날마다 출가하는 마음으로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 애써 기억하자며 나는 강의를 마쳤습니다.

남해 염불암

### “시원한 팔빙수 먹고 건강한 여름나세요”

동행, 아동센터 50곳 제빙기 지원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22일 전국 지역아동센터 50곳에 제빙기와 팔, 떡, 연유 등으로 구성된 20만원 상당의 빙수만들기 세트를 전달했다. 방과후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교실에서 보낼 저소득가정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달은 아름다운동행이 지난 5월부터 두 달 간 실시한 '맛한 여름, 쿨한 나눔' 캠페인을 통해 이뤄졌다. 아름다운동행은 캠페인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금으로 1000만원의 기금을 마련, 전국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 받은 409곳 가운데 50곳을 선정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캠페인에 선정된 지역 아동센터 50곳에 빙수만들기 세트를 일괄 배송하는 한편, 선정된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한 곳인 서울 금천구 해명지역아동복지센터를 직접 찾았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승스님은 해명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방과후 수업을 받는 초등학생 20여 명과 함께 빙수를 만들어 먹으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이무성 해명지역아동복지센터장은 "아이들이 가장 더위를 많이 타고 지칠 때에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에도 '맛한 여름, 쿨한 나눔' 캠페인을 통해 저소득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등 80여 가구에 쿨매트 세트와 여름이불 등을 전달한 바 있다.

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 조계종 신도의 기본, **발심품계(신도증)**로 시작합니다

• 신도품계 첫 번째 단계

## 신도님, 혹시 2015년 교무금 영수증 있으세요?



있으세요?



신도교무금 납부는  
신행생활의 첫걸음이며,  
조계종 신도의 의무입니다.

#### <신도교육 및 품계>

